

if? Life! 인생 안에 ‘만약’이 있다

if? Life! There is 'if' in life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내가 처음 프로포즈를 받은 나이는 만 열 아홉 살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J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날, 같은 독서 서클에 들어있던 우리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J의 죽음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허둥댔다. 화장을 한 J의 뺨가루를 친구들이 한 줍씩 나누어 산에 뿌렸다. 장례식에 입고 갈 검정색 옷이 없어 엄마 옷을 입을 정도로 새파란 나이였다. 영안실에서 주는 국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미숙한 나이였다.

J를 보낸 허망함에 남은 친구들은 소주를 마셨다. 두꺼비가 그려진 25도짜리 진로였다.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차마 할 수 없었다. J가 없는 독서 서클을 이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마셔도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는데, 함께 걷던 L이 다짜고짜 말했다. ‘나랑 결혼 하자’ 농담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어색함을 감추려고 나는 L의 어깨를 툭 치며 농담으로 대답했다. ‘폭 자고 일어나 내일은 정신 차려!’

그 때 만약 L의 청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테고,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오랜 세월이 흘러 상상해 보는 ‘만약’은 애뜻하고 달콤하다.

만 스물 아홉에는 남반구의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었다. 또 다른 J의 죽음을 겪고 난 후였다. 만 두 살 아들을 남겨 두고 병을 이기지 못한 그녀가 떠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도 퇴근을 한 뒤에야 영안실로 달려갈 수 있었다. 장례식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던 나는

그녀의 장례 미사에 지각했다. 출근하고 야근하고 월급 날을 기다리는 날들은 그녀가 세상에 없는데도 무심하게 이어졌다. 가슴 설레는 일도 목숨 거는 사랑도 모두 남의 이야기였다. 서울에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다면 낯선 도시에 가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그 때 만약 떠나면 이국의 도시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다시 돌아오는 일도 없었겠고 막내가 태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대신 무엇을 얻었을까? 여기, 지금이 딱딱해서 떠올리는 '만약'은 안쓰럽고 아득하다.

최근에는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부쩍 자주 '만약'을 생각한다. 만약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서한을 보내자마자 문과 김 두 정상이 다시 회동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 만약 2년 전 겨울 광화문의 촛불이 없었더라면, 탄핵이 없었더라면... 상상만으로도 오싹하다.

'만약'을 생각하는 일이 부질없다 해도 사람들은 자주 '만약'을 상상한다. '만약'을 주제로 한 광고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2017년 전파를 탄 칸포생명의 광고를 보자. 영상의 주인공은 일본의 가수이자 배우인 타카하타 미츠키이다. 미츠키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 후 등굑길에 우연히 악기판매점을 지나다가 트럼펫을 보고 연주를 시작했다. 또 이른 아침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라디오 체조에 참가했다가 첫 남자 친구를 만났다. 그 때를 떠올리며 미츠키는 '만약'이라는 공상에 빠진다. 만약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여름에 라디오 체조에 가지 않았더라면...



일본 칸포생명_기업PR_TVCM_2017_스토리보드①

미즈키의 상상은 '만약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않았더라면'하는 데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생각을 하자 학교의 합주 연습장과 첫 남자 친구와의 데이트 장소에서 그녀가 아예 사라진다. 물론 미즈키의 공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화들짝 놀란 미즈키는 현실로 돌아와 버스에서 뛰어 내린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녀의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 칸포생명_기업PR_TVCM_2017_스토리보드②

만약

만약

만약

만약, 그 때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트럼펫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만약 그 여름에, 라디오 체조를 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첫 남자 친구가 생기는 것은 조금 더 나중이었을까?

아, 만약 옛날에

아빠랑 엄마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의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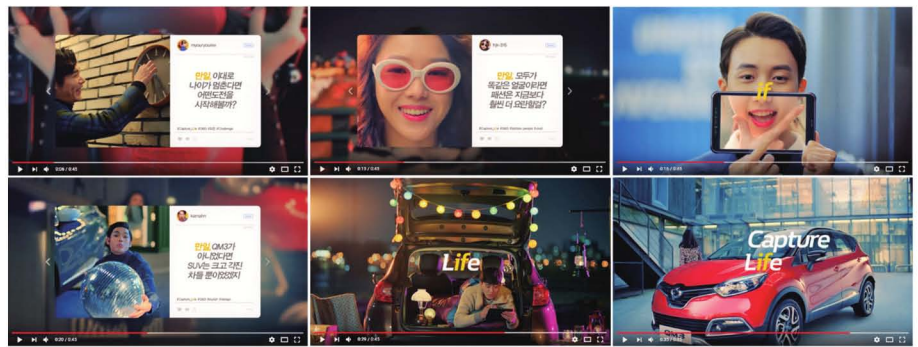
인생은 꿈투성이.

일본 칸포생명_기업PR_TVCM_2017_카피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내가 걸었던 길이 내가 만났던 사람과 내가 했던 결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든다.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와 뜻밖의 인연을

불러오기도 한다. 만약 그 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많은 만약(if)들이 모여 인생(Life)이 된다고 역설하는 광고도 있다. 2016년에 온에어 된 르노삼성자동차 QM3 에투알 화이트 출시 광고가 그렇다. 영어 Life의 철자 안에 i가 들어있는 것에 착안한 점이 재치 있다. 영상은 '만약'을 상상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유니버시식 구성으로 보여준다. 경쾌한 배경음악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과장된 표정과 행동이 보는 이들도 가볍게 '만약'을 떠올리게 한다.



르노삼성자동차_QM3 출시 편_TVCM_2016_스토리보드

자막) if
만일 이대로 나이가 멈춘다면
어떤 도전을 시작해볼까?
if
만일, 모두가 똑같은 얼굴이라면
패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요란할 걸?
if
만일, QM3가 아니었다면
SUV는 크고 각진 차들 뿐이었겠지
여Na) 호기심으로 가득 찬 당신의 인생
if로 가득해야 Capture Life

르노삼성자동차_QM3 출시 편_TVCM_2016_카피(부분)

물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광고도 있다. 만약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소리를 높이는 약사의 TVCM이 그렇다. 손해보험 회사인 약사는 배우 조진웅을 모델로 내세워 걱정을 잊고 지금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라고 설득한다. 보험회사다운 메시지를 지다.



AXA손해보험_브랜드 광고_TVCM_2018_스토리보드

조진웅) 당신의 일상에서
 설마를 없애고
 갑자기를 빼고
 만약을 지우고
 오직, 지금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풍경과 노래가사에,
 가족의 웃음에 집중하세요.
 사소한 걱정은 약사의 몫.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지금!
 LIVE NOW 약사

AXA손해보험_브랜드 광고_TVCM_2018_카피

당연한 말이다. 어쩔 수 없는 과거를 자꾸 가정해 보거나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을 '만약'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현재'에 작은 위로와 유쾌함을 선물한다. 어쩌면 지금에 집중하기

위해 '만약'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공상의 날개를 편다. 만약 종전선언이 나오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기차가 열린다면 어디를 먼저 갈까? 만약 미숙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만약 할머니가 되면 무슨 색깔 지팡이를 짚을까?
만약, 만약, 만약에...

<https://www.youtube.com/watch?v=s-ovZQ0fu6w>
일본 칸포생명_기업PR_『만약 그 때』 편 TVCM_2017_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m0ik_Tissg
르노삼성자동차_QM3 출시 편_TVCM_2016_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1pq4yGvmfF8>
AXA손해보험_브랜드 광고_TVCM_2018_유튜브링크